

독자 기고

지나온 추억을 되새기면서



국중군
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

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을 간직하면서 생
활하지만 너무나 깊이 추억에 젖어있
으면 인생에 보탬이 되지 않고 그 속에 머
물 수밖에 없다. 그러나 망각을 하면서
살아간다고 잊혀 지지 않는 추억이 있
다.

좋은 추억은 가슴속에 남아 좋은 기
억과 추억이 되지만 나쁜 추억은 평생
그 사람의 트라우마로 남아 고통하고
힘들게 한다.

나라 전체가 빨리 치유되며 시간이
지나고 세월이 가면 아픈 기억도 딱지
처럼 상처가 아물고 그래서 세월이 약
이라고 또한 흘러간 말처럼 신종 코로
나 바이러스도 조속히 지나가길 바란
다. 다 함께 국민이 슬기롭게 헤쳐 나가
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.

인생 살아가면서 추억 하나쯤은 다 가
슴에 숨기고 살아간다. 좋은 추억과 기

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
추억입니다. 슬펐던 일 기분 좋은 일 나

쁜 일도 회한처럼 하나하나가 기억은
못하지만 기록해놓은 일기장처럼 가슴
속 깊이 새겨져 있다.

필자는 옛그제 고등학교 때 지취한
집을 가보았다. 1980년대 지취한 곳은
40년이 되었건만 주변은 다 허물어져
새로운 건물로 변했는데 아직도 그대로
있는 주택 2층이 눈에 들어왔다. 마음
은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고 그
시절 그때의 회상이 떠오르며 만감이
교차하면서 눈시울이 아른거렸다. 누님
하고 지취하면서 살던 곳 이제는 갈 곳
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또 생활하
고 있는데 형제간도 어려서 형제간인
것을 이제는 성인이 되면서 다 각자 남
남처럼 지낸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깝고
그 시절이 그리워졌다. 지나간 세월의
무상함을 말을 해준 것 같고 지나온 추
억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고 추억

은 영원한 것 마음속으로 간직해본다.

필자는 어린 시절 스승의 날에 선생
님의 가슴에 빨간카네이션을 달아드리
고 고마움을 되새겼다. 그러나 요즘은
입시와 성적이 절대가지가 되어버린 오
늘의 교육 현실 속에 선생님은 단순한
지식만을 전달해주는 샐러리맨이라는
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과소평가되고 있
다. 하지만, 분명한 것은 선생님은 지식
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평
생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
끼치고 있다.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
일들이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가 더 행
복하고 좋은 추억이었다고 생각이 든
다.

우리는 지나간 좋은 추억만을 생각하
면서 생활한다면 우리 앞에는 분명 더
좋은 일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다가
올 것이다.

社說

긴급재난지원금, 경제의 선순환역할 기대

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, 소득
하위 70%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으
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
주기로 결정했다. 대상은 1천400만 가
구의 3천400만명 정도로 수혜폭이 광범
위하다. 선별적 지원이기는 하지만 이처
럼 폭넓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
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.

정부는 9조1천억원의 소요 재원을 마
련하기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
경예산안안을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
처리한다는 계획이다. 나머지 2조원은
지방정부의 부담이다.

정부가 다른 예산을 깎아 재난지원금
재원을 마련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상
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서 일것이
다.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
미칠 파장이 얼마나 크고 깊을지, 또 언
제쯤 길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지 예측
을 할 수 없다.

지원금의 지급은 이른바 5월 초에나
시작될 것 같다.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
물경제 회복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
들에게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, 하루하
루 극한의 어려움을 버티는 수혜계층
에게는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
다. 그리고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자
영업자-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, 기업
으로 흘러 들어가 무너져가는 산업생태
계를 조금이라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선
순환의 미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
다. 따라서 투입된 재정의 가성비를 극
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안
에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. 그리고 지급
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곳에 쓰일 수
있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.

큰 틀에서는 정해졌지만, 경제 선상의
지급대상을 확정할 때 소외나 역차별이
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. 조금이
라도 뒷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. 지원금
이 엉뚱한 데로 새 나가는 우회로도 빈

틈없이 차단해야 한다. 체크카드든, 시
기 한정 지역 상품권이든 마음먹기에 따
라서는 카드깡이나 상품권 할인으로
현금화될 수 있다. 민생 구제와 소비 진
작을 통한 경기 부양의 미중물 효과를
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의 원래 취
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홍보나 계도를
통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.

전남도민일보 www.jndomin.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101번길 19-2

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: 회장 김경, 발행·편집인 전광선, 사장 이문수, 편집국장 박종수, 주필 정기연, 대표전화 (062)227-0000, FAX (062)227-0084, 광고 (062)227-0000, 구독료 월 10,000원, 등록번호 광주.가25(일간), 인쇄처 (주)남도프린테크,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선릉로 18(서초동) 영진빌딩 6층

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.
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일한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
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.
'오피니언'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.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
불편사항, 개선점,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자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| 보내실 곳 이메일 2580@jndomin.kr 전화 (062) 227-0000

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독자 기고

봄철 산행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



진우창
고흥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사

따뜻한 봄 날씨에 산을 찾는 인파가
증가하면서 산행안전에 각별히 주의해
야 한다.

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를 살펴보
면 최근 5년('13-'17년) 간 등산사고
역시 봄철(3-5월)에 사고가 급격하게
많아진다. 사상자 수는 '17년을 기준으
로 1,292명(사망 25, 부상 1236, 실종
31)으로 가을철(9-11월)을 제외하고
는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.
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3월은 등산하기
에 좋은 시기이지만, 산에서는 날씨변

화가 심해 일교차가 크고, 얼었던 땅이
풀리면서 낙석과 추락?미끄러짐이 많아
실족으로 인한 부상 등 안전사고가 빈발
하므로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
한 시기이다.

따뜻한 봄, 안전한 산행을 즐기려면
안전수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.

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일몰 2시
간 전에 마치고,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
산행하지 않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랜
턴, 우의, 휴대전화(예비충전지), 상비
약 등을 준비해야 하며, 30kg 이상의 짐

을 지지 않는다. 또한 수시로 지형과 지
도를 대조하며, 등산로에 설치된 위치판
의 고유번호를 확인한다. 아울러, 해빙기
산행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
다. 정해진 등산로를 준수하고, 낙석이
발생할 수 있는 협곡 등은 피하고 저지
대와 고지대의 기온차가 크고, 정상 부
근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수 있기 때문
에 날씨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리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
에 여벌의 옷과 장갑 등 보온용품을 준
비하는 것이 좋다.

독자 기고

농사철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써야



황신욱
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

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면서 농기
계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관심
소홀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곤 한다.

더군다나 농촌은 고령화로 사고 건
수도 늘어나고 있다 농기계 사고를 예
방하기 위해서는 보호구 착용, 농,작업
복 착용등 작업해야 하지만 실정은 그
렇지 않다.

또한 음주운전 절대금지 차량 추돌
사고 방지를 위한 등화장치 작동, 야간
주행시 도로교통 준수 등이 필요하다.
농기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

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
주의가 요구된다.

농기계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
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보인
다.

야간 운행 등에 대비 야광판 부착 등
으로 차량 추돌사고 방지 및 차량 운전
자도 농민의 입장을 헤아려 농민기에
는 안전 운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
다.

또한 고령자 오토바이 사고 피해를
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

과 보호 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.

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면 충격을
흡수할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
확률도 높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
없다. 또한 행락철 분위기 편승한 나머
지 한잔은 관망했지 라는 생각에 음주
운전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
에 노출되어 귀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
절대 일어나지 않아야겠다.

법규준수에 관심을 가져 대형 교통
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을 가져 안
전 문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.

혁신·소통·청렴
시민중심 디자인으로
완성된 광주!



시민이 주인이며, 시민이 중심인 도시!
민선7기 광주광역시가 함께 하겠습니다.

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혁신·소통·청렴으로 모든 시민들을 포용하는 열린 시정이 될 것입니다.
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필요가 함께하는 광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.

정리되고 풍요로운 광주
광주, 대한민국의
미래로!